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2.(목) 08:00 배포 2026. 11. 12.(목) 08:00

문화진흥 4개 기관 통합 추진으로 국민 문화 향유 혁신 기반 마련한다

- 11. 12. '(가칭) 한국문화진흥원' 설립 추진 특별전담팀 첫 회의 개최
- 한국문화정보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, 지역문화진흥원,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참여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최휘영, 이하 문체부)는 인공지능 대전환, 인구구조 변화 등 시대와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, 국민들의 문화적 삶을 돕는 '(가칭) 한국문화진흥원'의 설립을 추진하는 특별전담팀(TF) 첫 회의를 11월 12일(목)에 개최한다.

지난 9월 3일(목)에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'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'에 따라, 한국문화정보원,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, 지역문화진흥원,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(전통문화본부, 한복센터) 등 4개 기관을 통합해 '(가칭) 한국문화진흥원'을 설립하기로 했다.

이에 문체부는 9월부터 각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, 통합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체부와 통합 대상 4개 기관, 법률·노무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전담팀(TF)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. 특별전담팀(TF)은 기관 명칭 확정,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, 통합 이후 신설 조직과 인력 등 통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중심으로 '(가칭) 한국문화진흥원'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.

특별전담팀(TF) 공동추진단장인 문체부 명수현 문화정책관은 "이번 기관 통합은 기관별로 분산된 전문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 통합 기관이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	책임자	과장	김미라 (044-203-2511)
		담당자	사무관	오강석 (044-203-251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